

전북지역 장애인 가정 여행 편리해진다

‘기아 초록여행’ 전북권역 전주사무소 개소... 장애인 전용 차량 무상대여 등 전주 여행 활성화 지원

전북지역 장애인과 가족들의 여행이 편리해진다. 이는 장애인 전용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여행 경비와 유튜브비를 지원하는 ‘기아 초록여행’ 전북권역 전주사무소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기아 초록여행’ 전북권역 확대 선포식이 5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의철 기아 기업 전략실 전무, 김신규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회장, 최이천 전주시지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의전당 야외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 시와 전북도, 기아, 사단법인 그린라이트는 기아 초록여행 전북권역 운영을 공동 협력해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초록여행’은 기아의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수도권과 부산, 광주, 대전, 강



‘기아 초록여행’ 전북권역 확대 선포식’이 5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의철 기아 기업 전략실 전무, 김신규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회장, 최이천 전주시지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의전당 야외마당에서 열렸다.

원, 제주 지역에 이어 전북지역에도 사무소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장애인

이 자유롭고 안전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

초록여행 전주사무소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주시지원봉사센터가 수탁을 맡게 되며,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신청은 초록여행 앱 또는 누리집(greentrip.kr)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예약 접수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화(1670-4943)로 문의하면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초록여행 전주사무소를 통해 자유롭고 안전한 여행이 전주에서 시작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 아이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만드는 데 전주시가 앞장설 것”이라며 “전주는 물론 전북도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관광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추석 맞이 현장행정 강화·나눔 문화 확산

전주시 덕진구,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취약계층 이웃사랑 나눔 활동 등 전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을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따뜻한 명절이 될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덕진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장 행정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구는 동장을 중심으로 각 동 취약지역과 복지사각지대를 살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해 환경정비 및 취약계층 이웃사랑 나눔 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부서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패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고, 명

절 기간 중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는 오는 27일까지 ‘이웃사랑 나눔 창구’가 개설된다.

구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목표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기관·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시민(독자) 등 후원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

이기로 했다.

모인 기부금 등을 덕진구 1만5800여 세대의 저소득계층과 464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이용자들이 명절을 쓸쓸히 보내는 일이 없도록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긴 추석 연휴 기간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한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각도의 계획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풍요로운 추석 명절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전북대 인문대학에 독서진흥 유공 감사패 전달

전주시는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수준 높은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양질의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운 전북대학교 인문대학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전주시장실에서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준호 전북대 인문대학장, 김도형 전북대 인문대학 부학장, 김종혁 전북대 인문대학 인문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대학교 인문대학은 지난 2월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9개 시립도서관(꽃심·삼천·평화·효자·송전·금

암·인후·아중·건지)에서 지역대학 연계 ‘인문학 지식나눔 열린강좌’를 총 20회에 걸쳐 진행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된 열린강좌에는 전북대학교 인문대학소속 12개 학과 19명의 교수진이 강좌를 진행했다.

총 20회 진행된 열린강좌에는 563명의 시민이 수강했으며, 특히 릴레이 강연이 시작된 이후 최대 18명의 강연을 수강한 시민도 나왔다. 시가 열린강좌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91.6%를 기록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시민들의



전주시는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수준 높은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양질의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운 전북대학교 인문대학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화 수준 향상과 전주시 도서관 활성화 위해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준 전북대학교 인문대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재활용품 활용 지역경제 공헌

전주지역 지난해 수익금 10억원 달해... 철거 분리수거 당부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앞두고 매일 분리되는 재활용품이 새로운 경제적 창출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가 하루 쏟아내는 쓰레기는 엄청난 양이다. 이를 거르지 않고 모두 매립한다면 금수강산이 뒤덮여지고 환경오염은 극심하게 될 것이다. 재활용의 목적은 쓰레기 매립지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전주시청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우리 시민들이 매일 분리수거하는 재활용품의 수익금은 2022년의 경우 약 1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종페트병이 5억2000만원, 스티로폼이 2억9000만원, 캔과 고철류 등이 9000여 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들 물품은 고가 입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해동무역(경북김천), 효산산업(경기 포천) 등에 납품되고 있다.

재활용 처리 사업은 특수목적법인(공)인 전주 리사이클링에너지 등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 이곳에는 직원 100여명이 재활용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재활용 물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분리수거에 정성이 필요하다.

/김옥기기자



매일 분리되는 재활용품이 새로운 경제적 창출을 가져오고 있다. 사진은 주택가의 재활용 분리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립비용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시 차원에서 재활용품 선별품을 올리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의 경우는 ‘재활용정거장’을 저녁 시간대 2시간 동안 주택가 골목길에 이동식 분리배출함을 설치하여 전년 대비 2022년 재활용품 선별품을 75%까지 상승시켰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셔야 자원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당부했으며, 전주 리사이클링에너지 관계자는 “시민들이 잘해 주고 있다. 다만, 세척이 안 된 배달용기의 경우 다른 용품까지 오염시켜서 재활용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익혀

전주시는 지난 4월과 5월 이틀간 덕진구청 강당에서 전주지역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날 교육은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한국보육진흥원 전문 강사가 진행을 맡았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앞서 응급상황 행동 요령과 주요 응급처치 관련 온라인 이론교육(2시간)을 이수한 후 실습 교육에 참여했으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실제 연습해보며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을 익혔다.

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오는 10월 17일과 18일에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추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교육신청을 하여 받으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총 9일에 걸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예측하지 못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 어린이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02-6901-010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The 27th Muju Firefly Festival

제27회 무주 반딧불축제

2023. 9/2(토) - 9/10(일)



주최:  무주군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전라북도

무주반딧불축제 재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대학교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